

사회

전남대 총장선거 결선투표 폐지

대학평의원회 의결 ... 최다득표자로 결정

2012년 5월께 치러질 전남대학교 총장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 최다득표자가 총장으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6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장 후보선출 규정을 최근 의결했으며, 대학은 이 방안이 단과대학장 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종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평의원회 의결안은 총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들을 '총장선거후보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3명(2008년 선거시 4명)으로 압축한 뒤, 3명의 후

보자를 상대로 직접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3명의 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던 과거의 방식 대신, 1차 투표에서 곧바로 최다득표자를 총장 후보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총장 선거과정에서 대부분 1차에서 당선자(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됐으며, 이 경우 결선 후보와 탈락 후보는 물론 그 지지자들 간 이해 관계가 작용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결선 투표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합

집산하면서 선거 후 상호 반목과 갈등의 주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에 따른 대학 사회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년여 이상 논의해왔던 직선제 개선안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산대도 직선제를 근간으로 간선제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총장 선출안을 만들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단과대학 별로 토론회를 갖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승희 열사 추모사업장 헌정식 26일 박승희 열사 20주기 추모사업장 헌정식이 열린 전남대학교 1 학생회관 앞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말뚝 치워 주세요” 이색 민원

북구 주민 제기 ... A승마클럽서 골장 치워

“우리 마을 입구 도로 곳곳에 널려 있는 말뚝을 치워주세요.”

광주시 북구에 사는 한 주민이 최근 인도 위에 널려 말 배설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북구청이 패이언 말 배설물 단속에 나섰다. 민원인 이모(43)씨가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을 호소한 것은 지난 19일. 이씨는 “북구 용두동 마을 입구와 S골짜길 주변 도로 인도를 이용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 말 배설물이 자주 눈에 보인다. 조치를 취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말 배설물은 북구 용두마을 인근에 위치한 A승마클럽 회원들이 말을 타고 마을 입구 등을 지나면서 생긴 것들이다.

A승마클럽 관계자는 “북구의 지적을 받고 말 배설물을 곧바로 치웠다”며 “회원들에게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도교육청 직원 임용시험

정보자격증 가산점 폐지

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에서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정보와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 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의 가산점

도 크게 축소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은 올 하반기 채용시험에서부터 적용된다.

기준에 각각 1%, 0.5% 가산비를 부여했던 워드프로세서 2급, 3급과 1% 가산비를 줬던 컴퓨터 활용능력 3급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7분 해질 19시 14분 달돋이 02시 22분 달질 13시 5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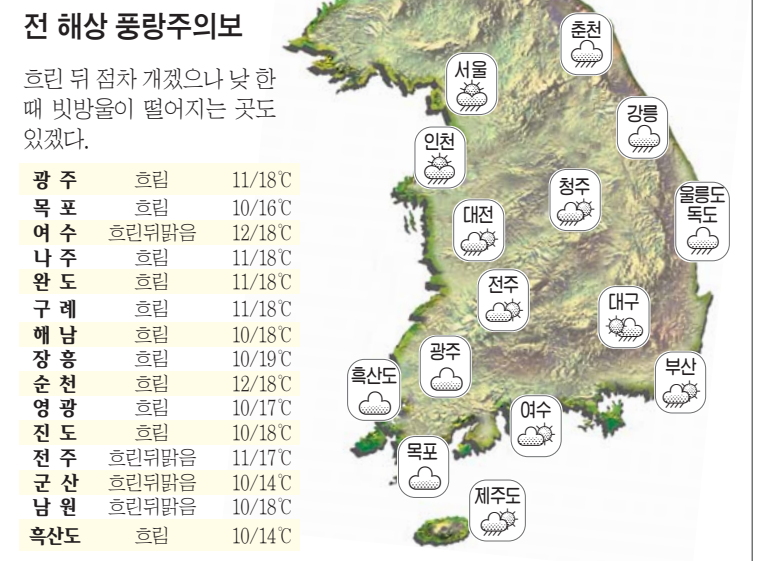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Seoul, Gyeongju, Busan, etc.)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기상안내전화' (Weather Forecast Phone) with a list of numbers.

국립공원의 야생화

눈속에 피는 흰꽃... 꿩의 발 모양 닮아

<6> 꿩의바람꽃

‘꿩의바람꽃’은 10~20cm 정도의 여러해살이풀로 숲 언저리나 풀밭, 산기슭에 무리지어 자란다. 이른 봄,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에 꽃줄기 끝에 한송이씩 흰색 꽃을 피우는데, 햇빛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다. 그런데 왜 ‘꿩의바람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꿩이 짝짓기를 하는 시기에 피기 때문이라



눈 설도 있지만 봉우리를 오르려고 잎이 말려 있는 모습이 꿩의 발 모양을 닮아 이름 붙여졌다는 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백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내년 전남대 총장 선거 벌써 후보 난립

전남대학교 총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찍 활동에 들어간 후보가 있는 반면, 올 초부터 대외 활동을 넓히며 입지를 다지는 후보들도 있다.

직간접으로 출마의사를 보인 입

지자나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 등 총 10명 정도가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의대에서는 박창수 전 학장과 윤택립 교수가 출마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지난 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병택 공대 교수와 오재일 행정대

학원장, 여기에 국회의원을 지낸 지방문 사회대 교수, 최영태 인문대 교수도 거론되고 있다. 또 국성근 전 자연대 학장,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역임한 최영국 자연대 교수 등도 구성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김영진 전 전남대병원장과 윤성석 사회대학장 등의 출마설이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18 기념재단 ‘복지정책 시민강좌’ 잇단 개최

5·18 기념재단이 복지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1년 상반기 5·18 시민강좌’를 마련한다. 또 각 정당의 복지정책을 듣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종합 토론회도 개최한다.

26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이 강연자로 참석, 시민강좌를 열 예정이다. 강좌는 복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 5월 27일 오후 3시에는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에서 1명씩 초청해 각 정

당의 복지 정책을 들어보고, 전문가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강연과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나아가 5·18의 가치와 정신을 확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민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 5·18 기념재단 학술교육팀 (062-456-0520)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orea National Directory' (국제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like Seoul, Suncheon, and Mokpo.

Advertisement for 'Smart' services by Korea Telephone Directory Co., Ltd. featuring a hand holding a smartphone and a QR code, with the slogan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